

GIST, 2025년 하반기 학위수여식 개최

AI·디지털 시대 이끌 미래인재 201명 배출

- 14일(목) 오후 4시, 박사 72명·석사 76명·학사 53명 학위 수여해 누적 졸업생 8,858명 배출... SCI 논문 발표(박사과정 1인 평균 5.2편) 및 AI 연구성과, 사회 공헌, 창업성과 눈길
- 지역 기반 기업인 김해명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 축하 통해 '사람을 위한 기술'·'인류를 위한 과학' 강조... 임기철 총장, 환경·에너지공학과 故 김경웅 교수 인도주의적 발자취 기려



▲ GIST가 14일(목) 오후 4시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4일(목) 오후 4시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72명, 석사 76명, 학사 53명 등 총 20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GIST는 1993년 설립 이래 박사 2,095명, 석사 5,271명, 학사 1,492명 등 총 8,858명의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과 (재)지스트발전재단 김해명 이사장이 맡아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지도교수와 동료 학생들이 준비한 축하 영상이 상영되어 현장 분위기에 감동을 더했다.

김해명 이사장(㈜엠에스엘 회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기업인으로서 ‘경영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문화·교육 후원에 힘써 왔다. **기부와 재단 활동을 통해 GIST와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 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축사에서 “혼자만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향하는 리더가 되어 달라**”고 주문하며 “GIST가 ‘**사람을 위한 기술**’과 ‘**인류를 위한 과학**’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연구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과학기술의 정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해명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이 2025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축사에 이어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오른 **기계로봇공학과 정해인 박사**는 졸업사를 통해 “**지난 6년간 GIST에서 탐구·성장·기여를 삶의 지표로 삼아, 전기차 급속충전 냉각 기술 등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에 매진했으며, 후배 멘토링과 학생 대표 활동, 그리고 매월 기부를 통해 배움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정 박사는 **이론·실험 기반의 열유체 이상유동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활발한 학생자치 활동을 이끌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우수연구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박사 72명은 재학 기간 동안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학술지(학회지 포함)에 총 376편의 논문을 발표해, 1인당 평균 5.2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신소재공학과 정윤성 박사는 박사과정 재학 중 SCI 논문 19편(주저자 4편, 공저자 15편)을 발표하며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정 박사는 ▲광전기화학적 바이오매스 전환 ▲물 분해 ▲폐기물 업사이클링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저자 논문 2편이 저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복합촉매 설계와 반응 선택성 제어, 표면공학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관련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활발한 공동연구로 융합적 접근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최근 AI 교육과 연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크게 확대되며 AI 기반 혁신과 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서 4대 과학기술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AI융합학과 최유진 박사가 재학 중 거둔 성과도 돋보였다.

최 박사는 최근 3년간 HCI(Human-Computer Interaction·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우수 국제 학회 및 저널에 주저자 7편, 공동저자 2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정 박사와 함께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청각장애인의 음악 창작과 감상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 음성·영상·터치 등 여러 형태의 입력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인터페이스 설계, 관련 특허 3건과 SW 저작권 1건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공연 등 융합 창작 활동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했다.



▲ 2025년도 하반기 학위수여식에서 GIST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GIST의 교육 철학이 추구하는 '3C 1P(창의성·협동심·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를 갖춘 인재상에 부합하는 졸업생도 눈에 띄었다.

신소재공학과 학사 졸업생 **박채빈** 씨는 재학 중 GIST 사회공헌단 '피움' 3~5기 단원으로 활동하며, '지식나눔 프로그램'의 하나인 **랜선 멘토링**(광주·전남 지역 사회적 배려대상 우선 초·중학생 대상 학기 중 과학 멘토링)에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참여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며 성실한 멘토링과 수업일지 작성으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했고, **도서·산간 지역 학생 대상 교육 봉사에도 힘쓴 공로로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학사 졸업생 **홍주영** 씨는 **AI 및 컴퓨터비전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류 사이즈 측정 플랫폼을 개발하고, 재학 중 창업한 '㈜시고르자브종'을 운영하며** 국내외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정부지원사업과 민간투자를 유지하고 특허를 확보하는 한편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SLUSH'에 참가해 **국제 무대에서 사업 경쟁력을 입증하는 등 창업 성과를 거두어 미래인 재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열린 학위수여식에 이어 두 번째로 시상하게 된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상은 **신소재공학과 심기연 박사에게 수여됐다.**

심 박사는 **교내 창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GIST 실험실 실전 창업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광섭 교수와 함께 차세대 리튬금속배터리의 고성능화를 위한 바나듐 산화물 기반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엘브이비'를 창업했다.** 아울러, 산학협력 과제의 실무 책임자로서 연구와 사업을 연계하며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학문적 성과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았다.

임기철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며, 각자가 택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창업자이자 오너라고 여기는 태도, 곧 ‘기업가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이미 하나의 창업과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병으로 타계한 **환경·에너지공학과 김경웅 교수가 'GIST 희망정수기' 프로젝트를 통해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20여 개국에 정수기를 보급하고,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에 환경공학과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헌신한 인도주의적 업적을 기리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으로 내리든, 오늘을 기억하며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하는 삶을 살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기철 GIST 총장이 2025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한편 GIST는 지난 2월, 기존 14개 학부·학과를 4개 단과대학(정보컴퓨팅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생명·의과학융합대학) 중심으로 개편해 학문 간 융합과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교육·연구 단위의 규모를 확대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했다.

작년 화학 분야 양자변환연구단(단장 김유수)과 물리 분야 상대론적 레이저과학 연구단(단장 김경택)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단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GIST는 총 3개의 IBS 캠퍼스연구단을 유치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됐다.

또한 2019년 개설한 AI대학원(現 AI융합학과), 202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AI정책 전략대학원에 이어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개교를 준비하는 등 AI·디지털 혁신 기반 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